

이름: \_\_\_\_\_

수험번호: \_\_\_\_\_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지배 계급이나 국가나 군주의 소유물이 아니다. 또 권력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억압 체계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국가나 법률, 그리고 억압 기제 등은 권력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최종 형태일 뿐이다.

푸코는 권력이 개인이나 집단에 부여된 실체적 힘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 권력이 편재(遍在)해 있다고 주장한다. 가족 및 친족 관계, 정치·경제 과정과 관련된 관계, 지식과 기술의 형성과 관련된 관계, 성(性)과 관련된 관계 같은, 모든 가능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리와 불평등의 직접적 결과가 곧 권력 관계이다.

따라서 푸코는 군주나 국가가 권력의 핵심이라는 명제를 거부하며, 그것을 케케묵은 주장으로 간주한다. 푸코는 권력 관계는 사회에 편재하기 때문에 국가보다 미세한 수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권력 관계의 토대 위에서만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국가 대 개인이라는 설명 방식으로는 해명할 길이 없는 권력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비판의 전략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고 푸코는 강조한다. 푸코는 사회구성체의 모든 지점에서 작동하는 권력 관계를 연구하면서 자신의 연구 방법론을 ‘지역적’이라 말한다. 더불어 푸코는 권력의 관계적 특성 때문에 권력 비판도 지역화되고, 또한 ㉠이런 맥락에서 지식인의 역할도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1. 제시문의 ‘푸코’의 입장에서 ‘권력’과 관련해 ‘국가’를 간략히 규정하시오.
2. ㉠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밑줄 친 ‘지식인’ 중 ‘푸코’가 선호하는 지식인은 어떤 지식인이며, 그 지식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보 기>

보편적 지식인은 스스로를 만인의 양심이자 보편적 진리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한다. 한편, 구체적 지식인은 자신이 일하는 특정한 분야, 가령 가정, 법원, 병원, 대학, 실험실 등에서 자신을 권력의 대상과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여러 형태의 권력에 대해 투쟁한다.

이름: \_\_\_\_\_

수험번호: \_\_\_\_\_

※ 다음 가)와 나)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관동별곡」의 주된 모티프는 공인(公人)으로서의 의무 및 직무에 관한 것이다. ‘강호죽림에 누워 있다가’ 임금께서 ‘관동 팔백 리에 방백을 맡기시니’ 명을 받들어 그 임무에 나아가는 것이 직접적인 동기다. 그러므로 「관동별곡」에는 그 전편을 통하여 의무 및 직무의 정신이 꾸준히 관류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 및 직무의 정신이라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하여 나타내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모습이며, 개인과 사회와의 절충 및 타협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이다. 인간은 문명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와의 어떤 타협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에 대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얼굴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얼굴을 우리는 흔히 그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의 진정한 내적 욕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진면(眞面)을 위장한 마스크이기 쉽다. 이러한 마스크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페르소나(persona)’라 한다. 페르소나의 본디 뜻은 고대 배우들이 각자의 배역을 드러내기 위하여 썼던 마스크, 즉 가면을 의미한다. 페르소나는 보통 그 개인이 가진 독특한 퍼스낼리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집단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페르소나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면, 「관동별곡」의 서두에 ‘성은망극(聖恩罔極), 고신거국(孤臣去國)’ 등 판에 박힌 관습적 용어가 지배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중년의 부인들은 서로 비슷한 복장에 똑같은 화장을 한다. 딸아이는 이것을 두고 모두들 아줌마 탈을 한 겹씩 둘러쓰는 것 같다고 말한다. 딸아이의 말에는 분명히 힐난하는 어조가 들어 있다. 하지만 그 애보다 세상을 세 배쯤 더 살아온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중년의 부인들은 바로 그 아줌마 탈 뒤에서 편안할 것이다. 그녀들은 그 탈의 힘을 빌려, 본래의 얼굴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처리해 낸다. 그녀들은 그 다른 얼굴을 내세우고, 물건값을 깎기 위해 모진 흥정을 하거나 자식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것이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가려주는 피신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탈은 그것들이 지시해주는 처지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아줌마 탈의 뒤에는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파악한 사람의 ‘자신감’이 들어 있다.

1. 제시문 가)에 언급된 ‘페르소나(persona)’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 세 가지 이상을 제시문 나)에서 찾으시오.
2. 제시문 가)와 나)에서, ‘페르소나(persona)’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관련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